

경영합리화

경영합리화는 바람직한 경영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비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쓸 곳은 쓰되, 쓰지 않아도 될 곳은 철저히 쓰지 않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경비만 절감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위축되며, 반대로 경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면 매출 규모에 비하여 실제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신 경 호
(주)바이오맥 대표이사

경영합리화는 바람직한 경영을 통하여 수익 창출을 극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경비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하여 쓸 곳은 쓰되, 쓰지 않아도 될 곳은 철저히 쓰지 않아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무조건 경비만 절감하다 보면 사업 자체가 위축되며, 반대로 경비 지출이 과다하게 되면 매출 규모에 비하여 실제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은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경영합리화는 기업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돈을 꼭 써야 할 곳과 쓰지 않아도 될 곳을 가려 쓰는 일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나가던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영 부실 때문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경영합리화가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을 어디에 어느 정도 써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꼭 써야 할 곳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투자 가치, 경제성, 부담 능력, 위험 부담, 정당성, 적정성 등을 들 수 있다. 투자가치란 말 그대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경우에 항상 부딪히는 가장 큰 명제가 바로 이 투자 가치 문제이다. 목장에서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거나 기존의 장비를 교환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투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투자할 대상에 대해 잘 모르면서 투자 가치를 판단한다는 것은 글씨도 모르면서 책을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것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돈 쓸 곳은 쓰기로 들면 한 없이 많지만, 쓸 돈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쓸 곳과 나중에 쓸 곳을 가려야 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가 바로 경제성이다.

즉, 모두 다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은 한정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경제성이 높은 쪽부터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경제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타이밍이다. 시기를 놓친 다음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며, 생각해야 할 것도 많다. 수재의 연금은 얼마를 내는 것이 좋으며, 사랑의 우유 보내기 운동에는 또 얼마를 내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물며, 한 기업이나 목장의 운명이 걸려 있는 투자의 결정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즉 돈을 잘 쓰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코치를 받아야 한다. 경영 컨설팅을 받는 주 목적도 결국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배우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합리화는 꼭 돈하고만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인 사고는 어느 곳이나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간관리를 합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일할 시간에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은 여가를 맘껏 즐기되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도를 넘지 않는 것이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에게는 남편답게, 자식에게는 아버지답게, 친구에게는 친구답게 처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는 아내로서 존중하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존중하며, 친구는 친구로서 존중하는 인간관계에 흐트러짐이 없다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일은 없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문화 분야에서 현재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풀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경영합리화는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영을 알차게 하는 것이다. 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급한 일과 덜 급한 일,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잘 가려서 그 순서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또한, 이 원칙은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푸는 열쇠가 되므로, 어느 경우든 이 원칙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매사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㉞

〈필자연락처 : 031-206-2363〉

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성보다는 타이밍에 우선권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투자 가치가 높고 중요한 것이라도, 부담할 능력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사업을 하다 보면, 빚을 내서라도 급한 불은 끄고 보는 일을 안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자와 원금에 대한 상환 능력과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솔하게 많은 기업들이 대책 없이 남의 돈을 빌어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였다가, 결국은 도산하고 말았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경영을 하면서 가장 판단이 흐려지기 쉬운 부분이 위험 부담이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정적인 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일도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 보면, 위험 요소가 도처에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까지 모두 검토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된 연후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비용의 지출은 정당하여야 한다. 수익을 좀더 내기 위하여 정당하지 못한 곳에 지출이 된다는지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출이 되는 것은, 경영합리화를 표방한 부정일 뿐이다.

끝으로, 비용은 적절한 금액을 써야 한다. 사용 금액이 도에 지나치거나,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느 정도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